



리빙필드 소식 2024년 4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4월은 일년 중 가장 무더운 달입니다. 40도를 웃도는 날씨에 정전과 단수도 잦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무더위를 피할 곳 없는 가난한 이웃들과 취약 계층들입니다. 지금은 쯔츠남 크마어로 불리는 새해 명절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다녀 옵니다. 가정에서 홀로 믿고 있는 학생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무게가 큼니다. 절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명절 기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받는 압력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소노고 기독학생회는 프놈펜과 시엠립에서 대학생 복음 전도와 소그룹 제자 훈련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도 모임을 통해 학생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월 소그룹 연합 모임을 여는데 3월에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프놈펜 기술 대학교에서 전도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블라이 형제도 소노고 연합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집이 먼데도 늦은 저녁 오토바이를 타고 모임을 계속 찾아 오는 형제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불교적 가치관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해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다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형제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성경공부 소그룹을 함께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학생들

학생 리더 훈련이 격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놈펜 5명, 시엠립 6명의 대학생 리더들이 각자 캠퍼스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까닭에 일과 학업을 힘겹게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버거움에도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캠퍼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학생들을 돕고 있는 학생 리더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캠퍼스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학생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프놈펜 소그룹 연합 모임



시엠립 학생 전도 모임



프놈펜기술대학 전도성경공부



네악르영교회 주일 예배



현지 목회자 설교 훈련



교단 신학교 강의

지난 두 달 매주 훈련을 통해 간사들에게 설교법과 성경교재 개발법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에 기초해 설교를 작성하고, 청중인 대학생들의 삶에 구체적인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간사들이 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분별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설교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성경공부 교재를 제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 개발을 통해서 소노교 기독교학생회 훈련 커리큘럼을 잘 보완하고,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기에 소망합니다.

5월에는 시엠립에서 소노교 졸업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졸업생들 주도로 처음 갖는 작은 수련회입니다. 졸업생들이 부르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초에는 IFES 국제 기독교학생회 동아시아 학생 대회가 옆나라 태국에서 있습니다. 라이, 타뷔 간사가 인솔해서 프놈펜, 시엠립 각각 4명씩 총 8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자라기를,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훈련

페레약 총무와 함께 캄보디아 서부 뽀삿주 월웁에서 있었던 랭함 설교 훈련을 참석했습니다. 랭함 설교 훈련은 현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OMF 선교사들이 시작부터 함께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랭함 설교 훈련과 이후 계속되는 지역별 목회자 모임은 이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부르심 가운데 거룩하게 깨어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지 목회자, 교회 리더들 50여명이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별도 숙박 시설이 없어 텐트에서 지내야 하는데도 불편한 기색 없이 말씀을 즐겁게 배웠습니다. 서신서, 비유 설교 훈련에 이어 올해에는 구약 율법서와 선지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훈련했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정직하게 나누는 모습에서 깊은 격려를 얻었습니다. 훈련 내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교회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순전함을 주시고, 이들을 말씀으로 채우사 신실한 주님의 증으로 섬기게 하시기를, 각 교회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성결교회 교단 신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설교법을 가르치며, 매 수업마다 한 명씩 간증을 나누었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받았던 상처와 그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눈물로 나누었습니다. 단지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와 형제로서 이들과 함께 동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별한 목사님을 대신해 신학교 수업을 받아 온 나비 사모님은 졸업을 하고 따께오 지역으로 내려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은 생계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만류에 도중에 학업을 그만 두었고, 세 명의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교회 목회자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양여주 선교사 이야기

지난 3월에는 신입 선교사 훈련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동역(Working in multicultural teams)”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선교사들과의 동역에 대해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국적의 다양한 선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 선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과 은혜로 하나됨을 배워갑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가정에 먼저 손 내밀어준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들처럼 후배 선교사님들께 사랑과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선교사 동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월 23일이면 최원일 선교사님 추모예배 5주기입니다. 덩고 정전이 자주 되는 4월이면 최원일 선교사님이 더 자주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부활절 예배를 성실하게 섬기고 소천하신 선교사님의 성실함이 더위로 지쳐서 느슨해지려는 저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아내 되시는 조유진 선교사님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잘 받으시고, 이제 다시 5월이면 캄보디아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오신 그 믿음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선교사 사역이 너무 두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가벼운 걸음이 되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 소노교 기독교학생회 간사들(페레약, 사오피어, 라이, 찌다, 타뷔)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 전도 성경 공부 중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 페레약 간사와 라뷔 자매가 약혼식(4.26)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준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 소노교 졸업생 수련회(5.11-12)를 통해 졸업생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 신입 선교사들 언어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현지 교사를 잘 발굴하고 훈련하도록.
- 6-7월 한국을 방문할 때 후원교회, 동역자들과 은혜와 비전을 나누도록.
- 무더위 속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의진이 빈혈과 하진이 아토피 피부염이 잘 낫도록.